<h1>나 혼자만 레벨업-76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y4b00c8a98a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76화</p>  
<p>'잠깐만, 이게 대체...'</p>  
<p>어떻게 된 일일까?</p>  
<p>정기수는 백윤호와의 통화를 끝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.</p>  
<p>E급 헌터가 재심사를 받겠다고 나선 것만 해도 신기한 일인데, 백호 길드의 대표가 그 헌터의 재심사 결과를 바로 알려 달란다.</p>  
<p>'진짜 뭐가 있긴 있는 건가?'</p>  
<p>다른 사람도 아닌 백윤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니 정말로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.</p>  
<p>그러나 곧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'에이, 설마.'</p>  
<p>각성 후 각성은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다.</p>  
<p>몇 달 전인가?</p>  
<p>재각성 의심자가 나왔다고 협회 전체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다. 물론 그것도 해프닝으로 끝났다.</p>  
<p>그만큼 실제 사례는 손에 꼽히고, 오해는 빈번한 게 재각성이었다.</p>  
<p>'자기가 재각성자가 됐다고 착각해서 왔다가 재심사 비용만 물고 가는 애들이 한둘도 아니고...'</p>  
<p>백호 길드에서 뭘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겠지.</p>  
<p>그래도 백호 길드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백윤호 사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.</p>  
<p>"나 어디 좀 갔다 올게."</p>  
<p>"예? 어디 가시게요, 대리님?"</p>  
<p>"B동에 볼일이 있었던 게 이제 생각나서 말이야."</p>  
<p>B동은 협회 직원들 사이에서 마력 측정실이 있는 건물을 가리키는 일종의 은어였다.</p>  
<p>"네, 알겠습니다."</p>  
<p>"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."</p>  
<p>"네."</p>  
<p>정기수는 속으로 '재각성은 무슨'하고 단정 지으면서도, 지금쯤 출발했을 백윤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B동으로 향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우는 대기자 좌석의 끝쪽에 엉덩이를 붙였다.</p>  
<p>현재 대기자는 세 명.</p>  
<p>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들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.</p>  
<p>'심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니까.'</p>  
<p>처음 협회를 찾았을 때의 진우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.</p>  
<p>내가 A급이 되면, 아니 B급만 돼도, 이러다 혹시 S급이 뜨는 거 아니야?</p>  
<p>행복한 단꿈에 젖어 있다 E급으로 판정 났을 때의 충격이란.</p>  
<p>문득 4년 전을 떠올리며 진우는 피식 웃었다.</p>  
<p>'뭘 보고 웃는 거지?'</p>  
<p>'것보다 지금 웃음이 나오나?'</p>  
<p>옆의 대기자들이 이상하다는 눈빛을 보내왔지만 진우는 여전히 담담했다.</p>  
<p>'타고난 강심장인가?'</p>  
<p>'긴장도 안 되나 보네.'</p>  
<p>하도 의연한 반응에 머쓱해진 대기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각자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.</p>  
<p>'그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.'</p>  
<p>이것도 진우의 기억에 있었다.</p>  
<p>괜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,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등급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었다.</p>  
<p>미소 짓던 진우가 찬찬히 건물 내부를 둘러보았다.</p>  
<p>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건물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.</p>  
<p>헌터 협회 자체가 생긴 지 10년이 안 되다 보니 건물도 새것처럼 깔끔했다.</p>  
<p>내부는 거의 기억과 같았다.</p>  
<p>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.</p>  
<p>'저 사람들.'</p>  
<p>진우가 맞은편에 몰려 있는 깔끔한 복장의 남녀들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자, 옆자리의 남자가 말을 건네 왔다.</p>  
<p>"다 길드에서 나온 사람들이래요."</p>  
<p>"길드에서요?"</p>  
<p>"네. 작은 길드는 아무래도 찾아오는 헌터들이 적다 보니까 저렇게 죽치고 앉아 있다가 등급 판정받고 나오는 각성자들을 꼬드겨 가는 거죠."</p>  
<p>어쩐지 저들 사이에서 냉랭한 기운이 감돌더라니.</p>  
<p>'이쪽을 향한 눈빛도 매섭고.'</p>  
<p>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.</p>  
<p>"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, 저런 길드는 안 가는게 좋아요."</p>  
<p>"왜죠?"</p>  
<p>"들어 보니까 작은 길드들은 위험한 레이드도 많이 하고 헌터들 사망률도 높다더라고요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아무래도 작은 길드들은 포지션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.</p>  
<p>개인 공격대들처럼 하급 던전에 들어가기엔 성이 안 찰 것이고, 그렇다고 상급 던전을 공략하기엔 헌터들의 기량이 부족한 편이다.</p>  
<p>그래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.</p>  
<p>'그러니 헌터들을 충원하는 게 중요한 문제일 테고.'</p>  
<p>결국 이렇게 협회 건물까지 따라 들어와 신참들을 노려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듯했다.</p>  
<p>"아."</p>  
<p>훤히 벗겨진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수건으로 톡톡 찍어 내던 남자가 진우에게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.</p>  
<p>"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로 인사나 할까요? 저는 윤정훈입니다."</p>  
<p>"성진우입니다."</p>  
<p>짤막하게 인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히 각자의 차례를 기다렸다.</p>  
<p>"다음 분."</p>  
<p>측정 장소는 탁 트여 있어서 마력 측정이 끝난 사람의 표정이나 직원들의 반응을 읽을 수 있었다.</p>  
<p>방금 측정을 끝낸 각성자의 얼굴은 좋지 않았다.</p>  
<p>'D나 E인가 보네.'</p>  
<p>길드에서 나온 사람들도 진우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, 각성자가 앞을 지나가는데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솔직한 반응이라고 할까?</p>  
<p>어쩌면 따로 결과를 알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,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.</p>  
<p>"다음 분 오세요."</p>  
<p>또 한 명의 결과가 나왔다.</p>  
<p>이번에도 역시 좋은 소식은 아닌 듯했다. 밖으로 향하는 각성자의 걸음이 무거웠다.</p>  
<p>당연한 일이었다.</p>  
<p>'상급 헌터가 그리 자주 나왔다면 그렇게 높은 연봉이 보장되지 않았겠지.'</p>  
<p>일반인들에겐 C급만 해도 대박이었다.</p>  
<p>개인 공대에 들어가도 큰돈을 쥘 수 있고, 운 좋으면 대형 길드까지 넘볼 수 있었다.</p>  
<p>백호 길드의 신입 중에서도 C급이 넷이나 있었으니까.</p>  
<p>대형 길드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면 어지간한 의사나 변호사 부럽지 않은 수입이 보장되었다.</p>  
<p>옆의 아저씨가 다시금 말을 붙여왔다.</p>  
<p>"대형 길드에 들어가면 계약금으로 목돈을 준다죠?"</p>  
<p>손수건을 쥔 아저씨의 손끝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.</p>  
<p>"사실 제가 빚이 좀 있거든요. 그거 때문에 지금 딸이랑도 떨어져서 살고 있고. 그래서 더 떨리네요."</p>  
<p>중얼거리던 아저씨가 화들짝 놀라더니 진우에게 급히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아이고, 처음 보는 사람을 앞에 두고 무슨 말을... 참 주책이죠? 제가 긴장하면 괜스레 말이 많아져서."</p>  
<p>"괜찮습니다."</p>  
<p>진우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아저씨는 긴장된다는 게 빈말이 아니었는지 연신 심호흡을 했다.</p>  
<p>또 한 명의 각성자가 나가고.</p>  
<p>"다음 분 오시면 됩니다."</p>  
<p>아저씨의 차례가 됐다.</p>  
<p>그런데 식은땀을 흘리던 아저씨가 진우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.</p>  
<p>어디 아픈 걸까?</p>  
<p>"아프신 데라도 있으세요?"</p>  
<p>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.</p>  
<p>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아뇨, 그런 건 아닌데... 먼저 하실래요? 제가 지금 너무 긴장돼서."</p>  
<p>아저씨의 눈빛이 간절했다.</p>  
<p>차례를 양보해 준다는데 사양할 이유가 있나?</p>  
<p>진우는 흔쾌히 승낙했다.</p>  
<p>이 몇 분간의 결과가 남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면 누군들 떨리지 않을까.</p>  
<p>아저씨 대신 일어난 진우가 직원 앞으로 갔다.</p>  
<p>직원은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.</p>  
<p>"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"</p>  
<p>"성진우입니다."</p>  
<p>"성진우 씨... 네, 저기 검은 판 위에 손을 얹고 기다리시면 됩니다."</p>  
<p>진우는 직원의 지시대로 측정기로 걸어가 검은 판 위에 손을 얹었다.</p>  
<p>'어라? E급 각성자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네?'</p>  
<p>서류를 들여다보던 직원은 신기하다는 눈빛을 보냈다.</p>  
<p>어째 재심사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헌터들은 죄다 E급인지 원.</p>  
<p>한심한 눈빛을 보내던 직원이 뒤늦게 측정기를 돌렸다.</p>  
<p>꾸욱.</p>  
<p>우우웅-</p>  
<p>잠시 소음을 내며 돌아가던 마력 측정기가 곧 작동을 멈추었다.</p>  
<p>결과는 모니터에 나타났다.</p>  
<p>'어? 이게 왜 이러지?'</p>  
<p>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손을 떼는 진우에게 말했다.</p>  
<p>"잠깐만요."</p>  
<p>"네?"</p>  
<p>"한 번 더 해 볼게요."</p>  
<p>"네."</p>  
<p>진우는 다시 손을 얹었다.</p>  
<p>꾸욱.</p>  
<p>'어?'</p>  
<p>이게 이런 적이 없는데?</p>  
<p>직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 갔다.</p>  
<p>왜 하필 이럴 때 측정기가 말썽인지.</p>  
<p>직원은 진우에게 한 번 더 양해를 구했다.</p>  
<p>"죄송합니다. 한 번만 더 다시요."</p>  
<p>"..."</p>  
<p>거듭된 재측정 요구에 진우는 아예 손을 떼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다.</p>  
<p>꾸욱. 꾸욱.</p>  
<p>'이게 진짜 왜 이래?'</p>  
<p>직원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갔다.</p>  
<p>술렁술렁.</p>  
<p>이쯤 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'뭐지? 무슨 일 있는 건가?'</p>  
<p>'벌써 몇 번째 측정기를 돌리는 거지?'</p>  
<p>'뭔가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?'</p>  
<p>시선이 쏟아지자 직원의 식은땀이 더 흥건해졌다.</p>  
<p>꾸욱.</p>  
<p>'아, 진짜, 나보고 어쩌라고.'</p>  
<p>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.</p>  
<p>"뭐야? 창식이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러고 있어?"</p>  
<p>직원이 뒤돌아보았다.</p>  
<p>거기엔 접수과의 정기수 대리가 서 있었다.</p>  
<p>"정 대리님!"</p>  
<p>생각지도 못한 지원군의 등장에 직원의 얼굴에 안도감이 떠올랐다.</p>  
<p>"선배는 잠시 화장실 가셨습니다."</p>  
<p>"이 자식은 지금 때가 어느 땐데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..."</p>  
<p>정기수는 말을 맺을 수가 없었다.</p>  
<p>'...나도 똑같네.'</p>  
<p>흠흠.</p>  
<p>어쨌든 시기적절하게 잘 온 듯했다. 지금 상급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신입 직원이 진땀을 흘리고 있지 않은가?</p>  
<p>이럴 때 베테랑이 나서야지.</p>  
<p>"뭐야? 무슨 일이야?"</p>  
<p>정기수가 관심을 보였다.</p>  
<p>"측정기가 좀 이상합니다."</p>  
<p>"측정기가?"</p>  
<p>"보십시오. 자꾸 오류가 뜹니다."</p>  
<p>비켜서는 직원 대신 정기수가 측정 결과를 표시하는 모니터 앞에 섰다.</p>  
<p>정기수의 얼굴이 경직됐다.</p>  
<p>"...너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냐?"</p>  
<p>"반년쯤 됐습니다. 제가 혹시 뭘 잘못 누른 겁니까?"</p>  
<p>"아냐. 그냥 창식이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해."</p>  
<p>"네?"</p>  
<p>"지금 화장실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 불러오라고!"</p>  
<p>정기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.</p>  
<p>직원이 움찔 놀라며 물었다.</p>  
<p>"왜, 왜 그러세요, 대리님?"</p>  
<p>"이거 오류가 아니고 측정 불가잖아! 측정 불가가 뭔 뜻인지 몰라?"</p>  
<p>"예에? 그거 오류 메시지 아닙니까?"</p>  
<p>신입들이란 어떻게 다 하나같이 이리 얼빵한 걸까?</p>  
<p>정기수의 시선이 신입을 떠나 측정 대상을 바라보았다.</p>  
<p>'어떻게 이런 일이...'</p>  
<p>성진우.</p>  
<p>백호 길드 마스터가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던 남자.</p>  
<p>정기수는 성진우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서 신입에게 말했다.</p>  
<p>"우리 측정기로는 대상의 마력을 잴 수가 없다는 뜻이다, 멍청아."</p>  
<p>"예? 그, 그거 설마?"</p>  
<p>얘가 일한 지 반년이라고 했나?</p>  
<p>반년은 무슨. 근 2년간은 나타난 적이 없었으니 신입 녀석이 모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.</p>  
<p>정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.</p>  
<p>"그래... S급이다."</p>  
<p>스페셜.</p>  
<p>널리 쓰이고 있어서 마치 정식 등급인 듯 보이지만 실은 측정을 할 수 없는 등급을 뜻하는 말이었다.</p>  
<p>"그러니까 빨리 창식이 불러와."</p>  
<p>"바로 전화하겠습니다."</p>  
<p>연락을 받고 튀어온 김창식이 숨을 헐떡이며 엉거주춤 바지를 올렸다.</p>  
<p>"헉, 헉, 어디 봐."</p>  
<p>모니터를 확인한 김창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갔다.</p>  
<p>곧이어 진우에게로 향한 김창식의 동공에 지진이 일어났다.</p>  
<p>'이 사람이 한국의 열 번째...'</p>  
<p>김창식은 진우에게 다가갔다.</p>  
<p>그제야 진우의 손이 측정기 위에서 떨어졌다.</p>  
<p>"저... 지금 기기로는 성진우 씨."</p>  
<p>곧 김창식은 진우가 자격증을 보유한 헌터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호칭을 바꿔 불렀다.</p>  
<p>"아니, 성진우 헌터님의 마력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 정밀 측정기를 사용하려면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3일 뒤에 다시 협회를 방문해 주시겠습니까?"</p>  
<p>김창식은 절차대로 고지를 했다. 이 말을 해본지가 대체 얼마만인지. 기억도 가물가물한 지경이었다.</p>  
<p>헌터로서 경력이 있는 진우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측정 보류 판정.</p>  
<p>다시 말해 3일 뒤에 있을 정밀 측정에서도 측정 불가가 뜨면 S급이 된다는 이야기였다.</p>  
<p>'잘했다.'</p>  
<p>지금 A급 판정이 났으면 능력치를 더 올려서 협회를 다시 찾아와야 했을 거다.</p>  
<p>하지만 각성 후 각성도 희귀한 마당에 거기서 각성을 한 번 더 했다고 말한다면?</p>  
<p>재각성까지는 운이지만 3차 각성부터는 의심스럽다는 시선을 받게 될 지도 몰랐다. 귀찮은 일에 연루되어 시간을 낭비하는 건 사양하고 싶었다.</p>  
<p>'후-'</p>  
<p>다행스런 결과에 진우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그리고 돌아섰는데.</p>  
<p>"어?"</p>  
<p>협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"아이고, 바쁘실 텐데 뭘 또 찾아오고 그러십니까."</p>  
<p>"에이, 그래도 헌터협회 박 부장님을 뵙는데 전화로 되겠습니까?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말씀드려야지."</p>  
<p>최종인이 눈웃음을 보내며 살갑게 이야기하자, 불혹을 넘긴 박 부장이 허허하며 웃음 지었다.</p>  
<p>눈앞의 사내가 누군가?</p>  
<p>한국 최고의 길드인 '헌터스'를 이끄는 남자다.</p>  
<p>최종병기, 최종인.</p>  
<p>그가 한마디만 하면 국내 최강의 정예 공격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.</p>  
<p>그런 남자가 이리 비위를 맞춰 주는데 어째 기분이 나쁠 수 있을까?</p>  
<p>최종인이 담배 한 개비를 들고서 물었다.</p>  
<p>"담배 한 대 괜찮습니까?"</p>  
<p>"아, 물론이죠."</p>  
<p>"부장님도?"</p>  
<p>"아뇨, 전 됐습니다."</p>  
<p>불을 붙인 담배를 입에 문 최종인은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다운 여유가 흘러넘쳤다.</p>  
<p>'이런 게 카리스마인가?'</p>  
<p>홀린 듯 자신을 바라보는 부장에게, 문득 최종인이 물었다.</p>  
<p>"그런데 오늘 B동 쪽이 좀 시끄럽네요?"</p>  
<p>"B동이요?"</p>  
<p>부장이 B동 쪽을 바라보았다.</p>  
<p>사실 부장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.</p>  
<p>하지만 최종인은 S급 헌터였다.</p>  
<p>오감이 일반인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.</p>  
<p>최종인이 시끄럽다고 했다면 아마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터.</p>  
<p>귀한 손님이 계신데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.</p>  
<p>부장은 눈살을 찌푸리고는 말했다.</p>  
<p>"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."</p>  
<p>"아니요."</p>  
<p>최종인은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벼 껐다.</p>  
<p>"무슨 일인지 저도 궁금하네요."</p>  
<p>고개를 든 최종인의 눈에 이채가 흘렀다. 동시에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.</p>  
<p>"같이 가시죠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